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입주민 갈등 폭주

전주매일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음 7월 6일) 제35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 '속도'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 전주~성주 고속도로 등
전북자치도, 관련 사업별 후속조치 계획 수립
내년 국가예산 확보 · 조속한 사전절차 등 추진

지난달 1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우고, 대한민국 생명산업과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별 세부 후속 조치 이행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도는 민생토론회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에 맞춰 내년 국가 예산 확보,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부처 협의, 신규사업 건의, 조속 추진 등으로 본격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특히, 현재 내년도 국가 예산이 기재부 막바지 심의 단계에서 있어 각 실·국에서는 민생토론회 관련 사업을 비롯해 주요 중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 예산실을 계속 찾아가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건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이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수시 배정 해제 요청 및 내년 국가 예산 834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 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대학원 신설,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및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에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약 5조4,000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전주~성주 고속도로의 경우 대통령의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전주~무주 구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하고, 무주~성주 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착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 산업용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 매립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산업용지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MP에 반영해 산업용지 추가 확보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수소특화국가산단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 예타를 신청하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함을 설득해 나가며, 전북특별법 개정, 농생명 산업지구 및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등은 부처 협의 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임을 강조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을 첨단 해양 장비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키운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해양 무인 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 개발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유무인 해양 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도 신규사업으로 건의하고, 추진 중인 김제·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은 물론 남원에도 임대형 스마트팜이 신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의 말씀을 토대로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전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부처에 적극 건의해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항들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시원한 물미끄럼틀 타고 신나게

연이은 무더위와 소나기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8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세병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여름밤,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로

시, 이달 한달간 '한여름 가맥마당' 등 마련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야간관광 프로그램이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에서 제공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8월 한 달 동안 가맥과 특화메뉴를 테마로 한 '한여름 가맥마당', 감성가득 영화와 전주십미(十味) 만남 '맛있는 전주심야극장' 등 다양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한여름 가맥마당'을 오늘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첫선을 보인다.

한여름 가맥마당은 1980년대 전주에서 태동하고 성장한 동네슈퍼(가게)에서 맥주를 파는 가맥집의 복고풍 감성을 갖춘 '7080 레트로 콘셉트'의 버스킹공연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이벤트 등 즐길거리와 먹거리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3일에 이어 오는 10일과 24일 오후 7시, 전주팔복예술공장 B동 이팝나물홀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을 운영한다.

맛있는 전주심야극장은 특별한 장소에서 영화와 함께 지역 셰프가 전주 지역의 식재료(전주십미)로 조리한 상영작과 관련된 음식을 관광객이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엄마의 공책'과 'B급 음식 서바이벌'이 각각 상영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 교육협력사업 '결실'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설치사업' 공모서 정읍 · 남원 확정
교육발전특구 이어 100% 선정… 상생 방안 공동 추진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공모사업인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업에 응모한 정읍과 남원 두 곳 모두 선정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신청 지역 모두가 선정된 데 이은 또 한 번의 쾌거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지난해 부안, 올해 1차 순창에 이어 이번 2차에 정읍과 남원이 모두 선정되면서 교육부로부터 총 33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서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생 방안을 추진해 온 결과다.

먼저, 정읍제일고 부지에 들어설 학교복합문화센터(교육부 86억원, 정읍시 86억원)는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센터, 미래창작공방, 영재교육실 △글로벌 웹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웹툰 교육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오케스트라 합주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심 공영주차장 설치로 정읍시민들의 주차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운봉에 건립되는 남원 동부권 학교복합시설(교육부 98억원, 국토부 30억원, 문체부 10억원, 남원시 58억원)은 △학부모 안심 늘봄시설 조성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실 및 스터디카페 설치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지리산체육센터 등이 들어선다.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원 동부권 학생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성과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의 결실이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